

투데이 칼럼

쿠션언어기법

‘쿠션언어’라는 것이 있다. 생활에서 쿠션이란 없어도 상관없지만 있으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품이다. 따라서 쿠션언어는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언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번거로우시겠지만”, “번거롭지 않으시다면”, “괜찮으시다면”, “불편하시겠지만”, “실례합니다만” 등과 같은 쿠션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정성이 느껴지게 하는 언어이다. 그래서 쿠션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신뢰감을 얻고 존중받을 수 있다. 쿠션언어는 대화가 성공으로 가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강사도 대중을 향하여 쿠션언어를 사용할 때 신뢰와 존경을 얻는다. 쿠션언어는 경소에 대화를 통해 사용하고 있어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이거나 명령적인 느낌을 주는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식사하세요.”, “식사 안할 거예요.”, “식사 안할 거예요.” 라는 말을 쉽게 듣고 또 말한다.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식사하세요.”라는 말은 명령적인 느낌을 준다. 그리고 “식사 안할 거예요”라는 말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말이다. 이런 말도 쿠션언어를 사용하면 “식사할 시간입니다”, “식사가 기다리고 있네요”, “식사하세요”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말이지만 듣는 사람으로서 부드럽고 정이 가는 말인 쿠션언어로 바꾸어 연습해보자. ① 능력을 치하하고 싶을 때(역시 선생님이 최고예요. 선생님이 존경스럽습니다.) ② 처음 만난 사람에게(인상이 좋으시군요. 좋은 분을 만나서 행운입니다.) ③ 방문하여 만났을 때(부위가 참 좋습니다.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④ 고마운 인사를 할 때(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⑤ 헤어지는 자리에서(오늘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⑥ 어려운 사람에게(환상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⑦ 칭찬받을 때(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마운 칭찬을 기억하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가까운 사이인 부부들도 부부 싸움을 자주 하는 사람은 대부분 말을 잘못하여 싸움이 시작되고 말에 쿠션이 아니라 편지가 들어있으니 두들겨 맞는 것 같아 화를 낸다. 부부기간에 쿠션언어를 사용하면 싸움이 줄어들고 서서히 화목하게 지내게 된다. 말에도 역사사가 필요하다.

상대가 들었을 때 기쁘고 행복할 말을 준비하여 말해보자. 기쁘고 행복한 말을 건넬 때 당연히 감사와 존경이 들어온다. 쿠션언어는 상대를 배려하는 말이니 어느 누가 들어도 기쁘고 감사하게 된다. 강사들은 원고가 없이 강단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원고를 아예 안 쓴 것은 아니다. 이미 원고를 써놓고 모두 암기하거나 소화하였기에 원고 없이 강단에 오를 것이다. “5분간 말하기 위해서는 50분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라.” 강사들에게 이 말은 진리이다. 아무리 박식하고 말변기라 할 지라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등단한다면 100% 실패한다. 강사는 연단에 서기 전에 강의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를 꿰뚫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즉 서론, 본론, 결론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문 쓰듯이 강연문 등을 잘 작성해야 스피치의 달인이 될 수 있다. 포근하고 부드러운 언어는 물론 혐의적인 말투로 관계를 형성하는데 노력해 보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의장대 사열하는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신임 국왕



술탄 이브라힘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 신임 국왕이 지난 31일(현지시각) 쿠알라룸푸르의 국립공원에서 국왕 선서식에 앞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조호르주의 대부호인 술탄 이브라힘은 이날 퇴임하는 압둘라 이브니 이호맛샤 국왕의 뒤를 이어 말레이시아 제17대 국왕으로 즉위했다. 말레이시아는 13개 주 중 9개 주 통치자들이 5년 임기제에 따라 교대로 왕을 맡고 있다.

농민 시위 상징된 트랙터



지난 30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농민들의 시위가 열려 트랙터들이 거리를 막고 멈춰 서 있다. 농민들은 유럽연합(EU)의 환경 규제 정책과 농산물 수입 계획 등에 혐의하고 소득 감소와 생산 비용 상승에 대한 대책 등을 촉구했다.

사설

로맨스 스캠 사기범 증가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이란 신분을 위장해 이성에게 접근한 뒤 친분을 쌓아 돈을 뜯어내는 사기 기법이다. 로맨스(romance)와 신용 사기를 뜻하는 스캠(scam)의 합성어다. 최근 갈수록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등 사람들의 교류가 적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이들에게 암호화폐 투자 조언을 빌미로 접근하는 로맨스 스캠 수법도 늘었다. 로맨스 스캠은 SNS 프로필에 직업과 외모 등 자신의 신분을 속인다. 그리고 대화하면서 신뢰감과 친밀함을 형성한 뒤 연인 관계인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는 행태다. 재정적 안정성이나 신뢰감을 주는 직업 군인이나 의사 등을 주로 사칭한다. 시리아·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 파견 중이라거나 폴란드 석유회사 또는 영국 금융감독원에 재직 중이라고 속이는 등 사기 행각도 다양하다.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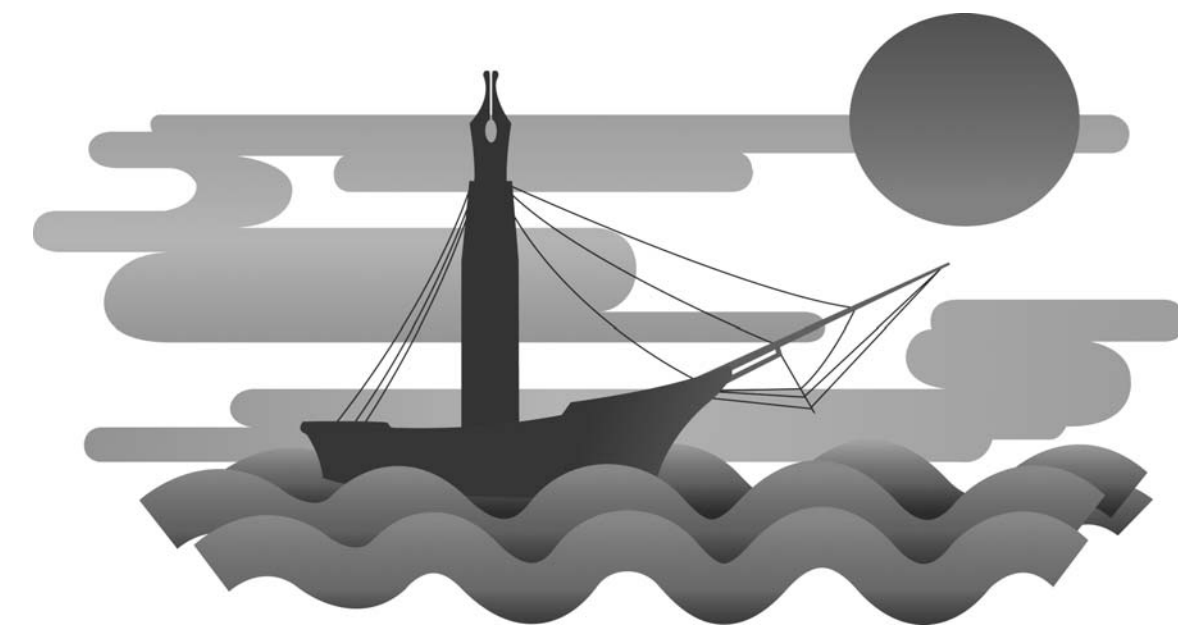
하지만 현실적으로 만날 수는 없다’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로맨스 스캠은 국제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다. 최근 5년간 로맨스 스캠으로 유죄가 내려진 총 73건의 피고인은 전부 외국인이었다. 국적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출신이 다수 포함됐다. 범죄 가담자들의 역할도 세분화돼 있다. 현금 인출책, 계좌 관리자, 피해금 인출 및 송금, 관리책, 계좌모집, 운전 등의 역할로 구분돼 있다. 특히 점조직으로 운영돼 있다. 동일한 범죄에 가담하면서도 서로 상대방의 신원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거지를 해외에 뒤 밀당타진이 어려운 보이스피싱과 비슷하다. 로맨스 스캠은 사기죄가 적용된다. 법인이 ‘돈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로맨스 스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이다.

어느 실버세대의 두번째 동시집

어느 실버세대의 두 번째 동시집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 김금남(78) 시인이 두 번째 동시집 ‘별들이 숲속에서 숨바꼭질해요’를 냈다. 평소에 틈틈이 써 왔던 동시 100편을 모아서 책을 펴낸 것이다. 그의 시집을 통해 해맑고 아름다운 동시 정신과 동심의 순수한 열정을 만날 수 있다. 시집에는 페이지마다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순수한 동심이 바탕에 깔려 있다. 어린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어머니가 아들딸들에게 베푸는 사랑,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도 가득하다. 특히 꽃과 열매의 향기가 그윽하다. 그는 동시(童詩)에 입문한 지 10년이다. 이제는 모든 사물을 아이들의 시각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김금남 시인은 동시집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순수 서정의 미를 간결하게 묘사했다.

실제로 김 시인은 어린이의 명랑하면서 발달한 진실성을 발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시인이다. 그의 해맑은 삶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시 정신에 집중하는 에너지 발산은 가히 모범적인 개성이라 할 수 있다. 나이를 잊은 여류 시인의 여성적인 모성과 사랑이 언어 감각으로 승화되었다는 평이다. 동시집은 누구에게나 어릴 적 순수했던 때로 돌아가게 한다. 그리고 상상력을 바탕으로 동심(童心)을 자극하게 만든다. 김금남 시인은 남원 출생이다. 그는 한국문화예술 신인상 시 부문, 소년문화 신인상 동시 부문 수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동시집 1집 ‘별들이 파란 갯요’를 출간한 바 있다. 현재도 동시문화회장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인이 말하는 동시 속에 산다면 우리 사회는 밝고 맑은 사회가 될 것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